

KIA 약점 불펜, 임기영으로 보강하나



“임기영이 고만이다.” 두산과의 단군매치를 앞두고 있는 KIA가 마운드 운용을 두고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바로 잠수투수 임기영의 기용이다. 선발투수, 필승조, 롱맨까지 다양한 선택

지가 있다. 일단 4선발투수 후보이지만 허약한 허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펜행 가능성도 커보인다. 일단 1~2차전은 중간투수로 불펜에서 대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태 감독은 “임기영을 어떻게 기

두산과 단군매치 앞두고 마운드 운용 고민
임기영, 4선발 투수후보지만 불펜 가능성도

용할 것인지 고민이다. 선발 뿐만 아니라 롱맨까지 활용을 놓고 생각하고 있다. 일단 1~2차전은 불펜에서 대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임기영은 네 차례의 연습경기에서 두 번 등판했다. 모두 많은 이닝과 볼을 던지지 않았다. 19일 경기에서는 양현종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나와 2이닝을 1피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21일 4차전에서 선발투수로 나섰다. 3이닝 2피안타 1실점했다. 투구수는 각각 22개와 39개였다.

임기영의 쓰임새를 엿볼 수 있는 기용이었다. 구위는 좋았다. 구속도 직구는 140km를 찍었고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모두 변화가 좋았다. 선발투수의 뒤를 잇는 롱맨의 가능성도 보인다. 최소한 2이

닝을 던지면서 필승조로 연결시키는 활약이 기대된다.

만일 임기영을 불펜으로 돌린다면 4선발투수가 애매하다. 김기태 감독은 4선발체제로 시리즈를 운용할 방침임을 천명했다. 20승 편지 헥터와 양현종이 각각 1~2차전, 5~6차전, 팻틴이 3차전과 7차전을 소화한다. 그렇다면 4차전을 맡을 선발투수가 필요하다.

임기영이 아니라면 대체 후보로는 임기준, 홍건희 등이 꼽히나. 그러나 아직은 확실한 카드는 아니다.

따라서 임기영은 1~2차전은 불펜에서 대기하고 4차전에서는 선발투수 혹은 1+1 롱맨 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과연 임기영이 허약한 불펜의 히든카드로 활약할 것인지 주목된다.



‘진짜 마지막’ 이호준 “광주서 끝내고 싶었는데 많이 아쉽다”

NC 다이노스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면서 베테랑 타자 이호준(41)의 선수 생활도 정말 끝났다.

올 시즌을 앞두고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호준은 이미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를 치른 지난달 30일 은퇴식을 했다.

하지만 NC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하면서 ‘선수 이호준의 시간도 이어졌다.

NC가 21일 경남 창원 마산구장에서 벌어진 두산과의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5-14로 패배, 1승 3패로 밀려 탈락하면서 ‘선수 이호준’은 정말 끝을 맺게 됐다.

이호준은 “은퇴식을 할 때보다 표현하기 힘든 마음이 박차 오른다. 울지는 않았는데 누가 조금만 건드려면 울 것 같다”며 웃어보였다.

이날 경기 4회말 대타로 나선 것은 선수로서 이호준의 마지막 타석이었다. 4회 2사 2, 3루의 찬스에서 김태균 타석이 되자 김경문 NC 감독은 이호준을 대타로 내세웠다.

이호준은 “마지막 타석이라는 생

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걸 잘 넘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도 올해는 하는 내내 편하게 했다”고 되돌아봤다.

이호준은 “NC에서 우승하겠다는 것은 욕심이었다. 하지만 신생팀이 3년 연속 가을야구를 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며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신생팀이 창단 이후 빠르게 성장한 것을 보며 보람도 느끼고 배운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NC는 내년,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팀”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5년간 NC에서 함께한 김경문 감독에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이호준은 “첫 해에 왔을 때 감독님이 경기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고 했다. 멋있게 떠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며 “너는 어릴 때 정전이라고 생각하라고 했을 때 25개 홈런 치고 은퇴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문 감독님이 항상 믿고 내보내 주셨다. 나이도 많고 고

정규시즌 마지막 홈경기인 지난달 30일 이미 은퇴식 치뤄 두산에 PO 4차전 패하며 선수로서 끝… “NC서 5년 행복”

각을 하지 않았다. 5차전에 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때에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 아쉽다. 더 좋은 모습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NC가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면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KIA 타이거즈와 맞대결을 했을 터였다.

해태 타이거즈에서 프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이호준은 마음 속에 있던 말을 꺼내었다.

이호준은 “광주에서 야구를 끝내고 싶었는데 아쉽다. 마음 속으로 광주에서 시작했고 광주에서 끝을 맺겠다고 생각했다. 신의 뜻이 아닌가 했다”며 “하지만 광주를 못가게 됐다”고 재차 아쉬워했다.

이날 경기를 마치고 이호준은 후배들을 라커룸에 모아놓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이호준은 “후배들 덕분에 NC에서 5년간 정말 행복하게 야구하고 떠난다고 고맙다고 했다”며 “경기가 끝난 후 미소가 나오더라. 선수들이 고개를 숙이길래 웃으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선수 생활을 돌아보면서 “나 같이 여자극장이 많은 선수가 있었을까 싶다. 프로에 들어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맨날 놀던 시절이 있었다”며 “결혼하면서부터 책임감 같은 것이 생겼고 그 때부터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야구를 했다”고 회상했다.

이호준은 “NC에서의 5년은 여유가 있었다. 행복하게 야구를 했고 해보고 싶은 야구와 꿈이 있었는데 다 해보고 떠난다. 행복하게 야구하다 떠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NC에서 우승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던 이호준은 “NC가 우승을 언제할 지는 나도 모르겠다. 우승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도 뭐가 해야겠

참이지만 혼낼 때 혼내셨다. 그런 것 없었다면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멋지게 떠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잘 배워서 지도자가 되면 감독님한테 배운 좋은 점을 선수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NC 선수들 중 후계자를 꼽아달라는 말에 모창민의 이름을 언급한 이호준은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모창민이다. 지난 10년간 선배 수발을 들면서 많은 표정을 한 번도 안 지었다”며 “나보다 잘해야 한다. 내후년 FA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드러냈다.

그러나 등번호 27번은 장현식에 계 준다. 이호준은 “장현식이 아웃 카운트가 27개라 그런 의미에서 27번을 가지고 싶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호준은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생각이다. 그 전에 일단 해외로 떠나 지도자 공부를 할 계획이다.

이호준은 “밖에서 보는 한국 야구가 어떤지 궁금하다. 다른 나라의 야구도 배우고 싶다. 미국으로 갈지, 일본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구단과 상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전에 지도자는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던 이호준은 “지도자가 되면 변하는 선배들이 많더라. 나도 이상하게 변할까봐 지도자가 하기 싫었다”며 “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지도해보고 싶어서 생각을 바꿨다. 선수 때 모습 그대로 해보려고 한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이호준은 “지도자 연수는 1년 정도 생각하고 있다. 어느 정도 해외 야구를 보고 한국에 와 한국 야구에 맞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뉴스스

PGA 측 “첫 한국 대회, 모든 것 훌륭하게 진행”
“한국 골프 산업발전 가져올 것”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디캡@나인브릿지’를 위해 한국을 찾은 제이 모나한 PGA 투어 커미셔너가 디캡의 한국 개최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모나한 커미셔너는 22일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제주 서귀포 클럽나인브릿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 3번째로 열린 이번 대회가 지금까지는 최상의 상태로 모든 것이 훌륭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2년 인턴에서 열렸던 프레지던트컵에서 놀라운 경험했다. 한국의 골프 열기가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며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에서 PGA 정규대회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10년 동안 대회가 열리는데 한국의 골프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타이보타우 PGA 국제 사업 부사장은 “선수들이 이곳 제주에서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있다”며 “다른 토너먼트와 마찬가지로 아주 훌륭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열리는 첫 대회이고 향후 10년 동안 개최될 대회인 만큼 더 나은 대회로 만들기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모나한 커미셔너는 “다른 PGA 대회와 마찬가지로 최상의 상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끊임없이 개선하는 과정이다. 다음에 이곳에 온다면 모든 면이 더 나아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팬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좋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도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대회 상금 규모에 비해 상위 랭크 선수들의 참가가 저조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도 첫 대회임을 강조했다.

보타우 국제 사업 부사장은 “선수들이 각자의 나라에 돌아가서 동료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모든 선수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이고 이것이 다음 대회 출전여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첫 대회 첫 단추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더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스

154cm 작은거인 송윤수, 양궁 세계랭킹 1·3위 잡고

여자 컴파운드 개인전 · 혼성전에서 2관왕



송윤수(가운데·현대모비스)가 22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7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컴파운드 결승(50m×3발 5엔드×150점 만점)에서 예심 보스탄(왼쪽·터키)을 145-14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시상대에 선 송윤수. 154cm 작은 키가 눈에 띈다.

한국 여자 양궁의 ‘작은 거인’ 송윤수(22·현대모비스)가 세계선수권대회 컴파운드 부문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2관왕을 달성했다.

특히 개인전에서 세계랭킹 1위와 3위를 모두 불리쳐 주위를 놀라게 했다.

송윤수는 22일(한국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2017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 컴파운드 결승(50m×3발 5엔드×150점 만점)에서 예심 보스탄(터키)을 145-14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랭킹 7위인 송윤수는 8강에

서 랭킹 3위 사라 프릴스벨기에), 준결승에서 1위 사라 손넨(덴마크)을 연이어 불리치며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결승에서 만난 보스탄도 8위로 수준급 선수다.

송윤수는 김종호(현대제철)와 함께 출전한 혼성전 결승에서도 독일을 156-149로 꺾고 2관왕에 등극했다.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땀다.

송윤수는 양궁선수로서 핸디캡이 많은 선수다. 154cm 48kg로 굉장히 작은 체구다. 5~6kg이나 나가는 기계식 활을 드는 것조차 버겁다.

구력도 짧다.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중학교 2학년 때 취미로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선수 활동을 시작한 건 고등학교 1학년 때다.

원래 올림픽 정식종목인 리커브로 시작했지만 입문이 늦은 탓에 동계생들보다 기량이 처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고등학교 1학년 가을에 컴파운드로 전향했다.

신의 한수였다. 송윤수는 고교 졸업과 함께 현대모비스에 입단해 전성기를 맞았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개인전과 혼성전 2관왕,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올해 타이베이하계유니버시아드에선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했다.

‘10초03’ 뒷바람에 “아깝다” 육상 100m 김국영

98회 전국체전에서 초속 3.4m 뒷바람에 인정 못받아



22일 오후 충북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98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한국 최고의 스피린터 김국영(광주광역시)이 육상 100m 결승에서 10초03으로 결승

한국 최고의 스피린터 김국영(광주광역시)이 육상 100m 결승 9초대 진입을 다음 기회로 넘겼

다. 김국영은 22일 오후 충북 충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98회 전국체육대회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10초03으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국기록(10초07)을 0.03초 앞당겼지만 기

준 풍속(초속 2m)을 초과한 초속 3.4m의 뒷바람에 공인기록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을 줬다. 김국영은 앞서 일반부 예선 1조에서 10초09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이때도 초속 3.4m의 뒷바람으로 기록 공인을 받지 못했다.

김국영은 “바람이 생각보다 많이 불어 레이스가 다소 흔들렸다”고 말했다.

김국영은 지난 6월27일 2017 코리아오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10초07로 골인해 이를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45회 전국육상경기대회 10초13을 기록하며 2년 만에 자신의 한국기록을 0.03초 단축했다.

김국영은 200m와 400m, 400m 계주에도 출전한다.

뉴스스